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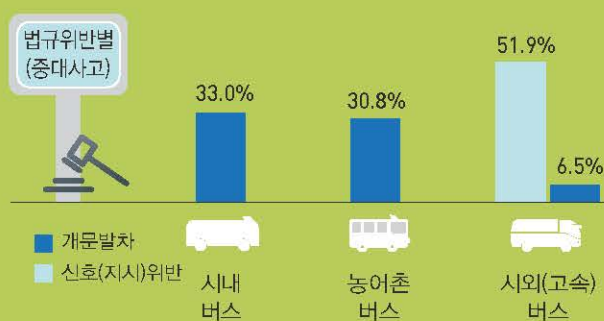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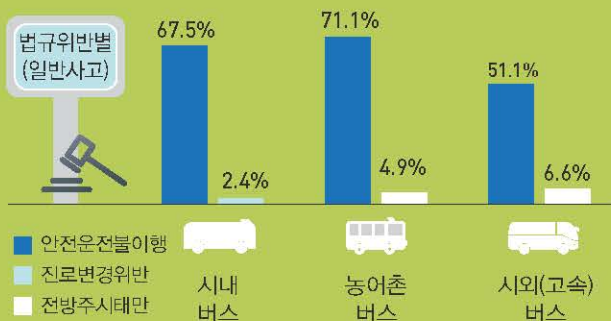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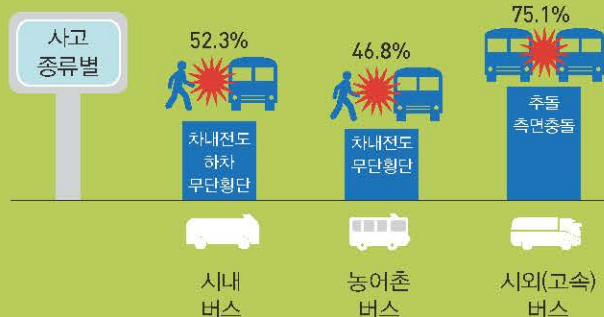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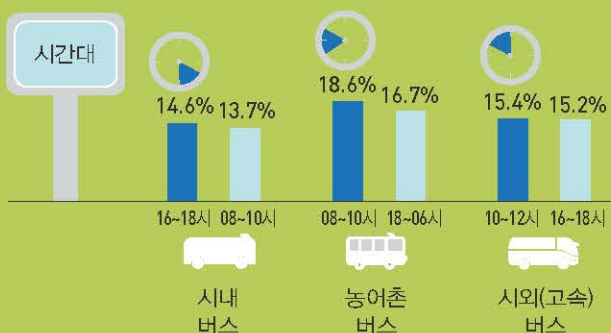
봄철 버스 교통사고, 이것만은 알아두자!

● 최근 얼마나 발생했나?



- 최근 3년간(2011~2013년) 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공제조합 사고일자 기준 총 64,316건이고 이 중 봄에 15,895건(24.7%) 발생
- 봄철 버스 교통사고 중 시내버스 14,173건(89.2%), 농어촌버스 485건(3.1%), 시외(고속)버스 1,227건(7.7%), 기타 10건

▶ 봄철 업종별 주요 사고발생 현황



※ 이외에도 봄·가을철 농번기에 이륜차와 농기계사고가 많으므로 주의 필요





봄철 춘곤증, 졸음운전과의 전쟁



- 졸음운전사고 1년 중 3~5월 사이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
- 졸음운전사고 40%는 도로이탈로 대형사고 가능성 높음
-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90% ⇨ 전체 교통사고의 4.5배
- 봄철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하루 평균 7건 발생
- 1초 잠깐 졸면 28미터, 4초면 100미터 이상 주행
- 충돌직전까지 상황 인지 못해, 충격 피해정도 일반사고의 3배
- 최근 3년간 버스 교통사고 발생요인 26%가 졸음운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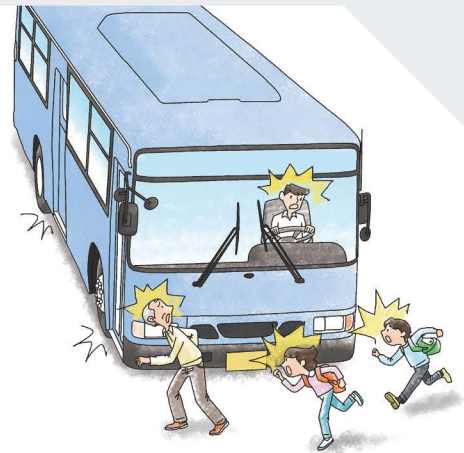
(자료 : 교통안전공단)

/ 예방책 /

-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운전하는 것은 기본
-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 차내 이산화탄소 배출
- 졸음운전 예방 위해 스트레칭 등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어줌
- 졸음방지 패치, 껌 등 졸음 방지용품을 사용해봄

어린이 · 어르신 교통사고 및 차내전도 사고

- 개학 후 등하교길의 어린이 이동이 많으므로 버스 운전기사 주의 요구
-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활동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증가
- 음주 상준객 차내 전도 등 차내 사고 빈발하므로 운전기사 주의 요구
- 차내전도 사고는 돌발상황에 의한 차량의 흔들림으로 차내에 서 있는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임
- 급출발, 급가속, 급커브, 급정차 등 급격한 변속 시 승객의 차내전도 사고 위험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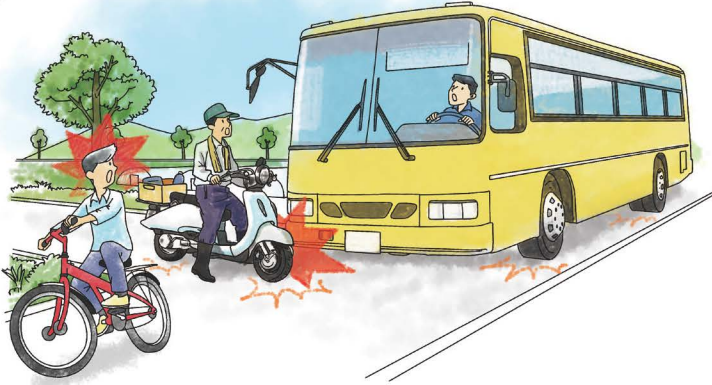


/ 예방책 /

- 야외활동 많은 봄철 어린이 · 어르신 보행자 발견 때 버스 운전기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함
- 운전기사는 입석승객의 안전을 위해 출발 · 정차 할 때 천천히 가감속하는 습관 유지
- 승객이 탑승 후 좌석에 앉거나 입석승객이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 후 천천히 출발
- 최대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통해 처음부터 급정차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



이륜차 및 자전거 교통사고



- 따뜻한 날씨 탓에 이륜차와 자전거 이용자 늘어남
-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봄부터 급증, 5~10월 사이에 증가
- 특히 6월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률보다 높아 운전자 주의 필요함
-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61세 고령자 비율이 전체 40% 이상 차지함
- 버스차량 전후방, 측면 등 사각지대에서 특히 사고 위험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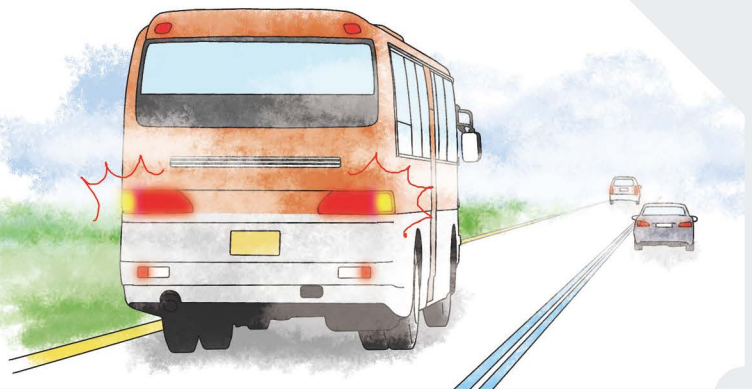
(자료 : 교통안전공단)

/ 예방책 /

- 버스 운전기사는 이륜차 등을 발견했을 때 미리부터 서행하는 등 방어운전 자세를 가져야 함
-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부분 이외는 사각지대이므로 보조미러, 육안 등으로 반드시 안전 상태 확인

봄철 교통사고의 복병, 안개

- 안개가 발생하면 통상 시야가 200미터 이내로 좁아짐
- 봄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져 안개 끼는 날이 잦음
- 하루 중 특히 새벽시간에 안개가 자주 끼므로 이를 알고 운전해야 함
- 안개 끼는 날은 시야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돌사고 위험 높음
- 바닷가나 강변 근처는 상습적으로 안개 발생하므로 더 주의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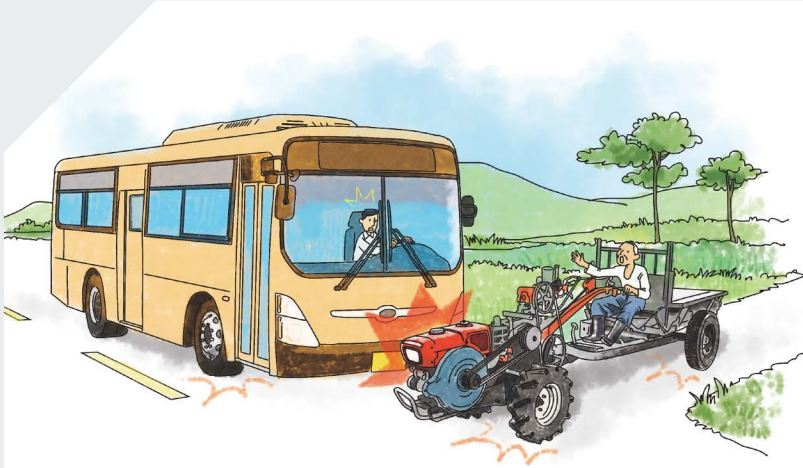


/ 예방책 /

-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도로별 최고제한속도의 50% 감속
 - 시내·농어촌버스는 60km/h 일반도로에서 30km/h 속도 운행
 - 시외(고속)버스는 100km/h 고속도로에서 50km/h 속도 운행
- 안개등이나 전조등, 비상점멸등을 켜고 차간거리 길게 유지하면서 감속 운행
- 차량의 창문을 조금 열어서 외부에 차가 오는지 소리로 확인함
- 안개길 굽은 도로 지날 때는 경적을 울려 차가 주행중임을 알림



● 경운기 등 농기계 교통사고



- 농기계 교통사고 절반이 봄 이앙기, 가을 수확기에 발생
- 경운기 사고가 전체 농기계 교통사고의 67% 차지
- 농기계 사망·중상사고 10건 중 9건이 경운기와 발생한 사고
- 자동차가 농기계 후미 추돌하는 사고가 절반 이상 차지
-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승용차의 7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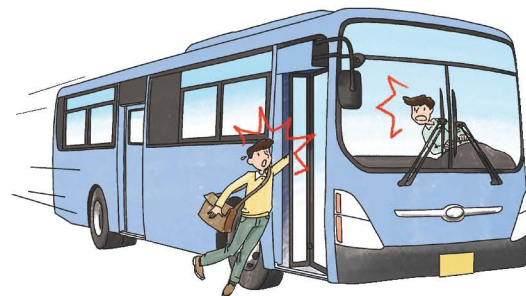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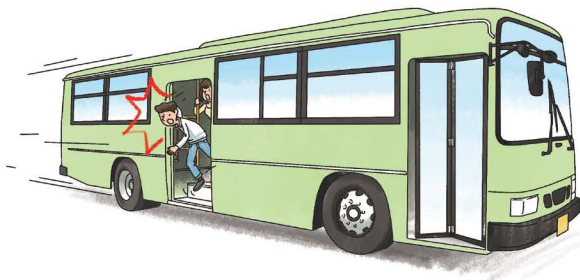
(자료 :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)

/ 예방책 /

- 농사일 나가거나 집으로 들어오는 오전 9시대, 오후 6시대 주의해야 함
- 경운기 등을 앞지르기할 때 경적 울려 자동차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야 함
- 농촌 부락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버스 운전기사는 반드시 서행하는 등 조심해야 함
- 시골길 등은 도로에 가로등이 드물다는 점 인식하고 운전기사는 방어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

● 개문발차 및 문끼임 사고

-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봄철부터 개문발차에 의한 사고 증가
- 개문발차는 배차간격 유지 등 급한 마음으로 출발하다가 발생
- 봄·가을철 시내버스 중대사고 중 개문발차 사고가 30% 이상 차지
- 문끼임 사고는 문이 닫히는 순간 승하차 문에 성급하게 달려들어 생기는 사고
- 일부 승객들이 앞문으로 하차, 뒷문으로 승차하는 경우 문끼임 사고 위험 높음



/ 예방책 /

- 정류장에서 운전기사는 승객 승하차 확인 후 2~3초 기다린 다음 문을 닫도록 함
- 정류장에서 승객이 내리 전에 문을 열고 출발하거나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기 전에 문을 열지 않도록 함